

DDA 농업협상이 우리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 성 인 /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DDA농업협상이 드디어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이란 단어는 대다수 낙농인들에게 낯선 단어일 것이다. 어떤 낙농인은 최근 DDA협상이란 용어를 처음 대하고 영한 사전을 뒤적여도 나와있지 않더라는 얘기도 들린다.

요즘들어 평소 들어보지 못한 DDA 협상이란 단어가 신문 지상에 심심찮게 나돌면서 우리 낙농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핫프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한 것인지, 동시에 낙농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제는 낙농인

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앞으로 2004년 말까지 타결되어 200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반대했던 UR농산물 협상보다 더 낙농업계에 치명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DDA 농업협상이란 WTO 협정의 후속 협상으로서 이미 '94년 WTO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향후 10년 후에 다시 농업분야를 비롯한 산업 서비스 분야의 국제 협정을 다시 조정키로 하고 지난 2001년 중동지역에 있는 도하에서 세계 각료들이 모여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을 'DDA(도하개발아젠다)' 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낙농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우리가 수입한 주요 유제품의 종류는 탈지 전지분유, 유장분말, 기타 유장, 혼합(모조)분유, 버터, 치즈, 유당, 조제분유, 카제인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 수입 유제품 중 지난 '94년 WTO 협정 당시 낙농분야의 경우 탈지·전지분유를 제외하고는 전혀 국경보호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 탈지 전지분유는 95년 수입개방 당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215.6%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그 관세율을 매년 낮춰 종료시기인 2004년에는 176%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의무수입량은 20%의 관세를 적용시켜 탈지분유의 경우 95년 621톤에서 2004년 1,034톤으로, 전지분유는 344톤에서 573톤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치즈, 혼합분유 등 다른 유제품은 선진 낙농국과 비교할 때 완전히 벌거벗고 수입개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선 유제품의 대표주자 격인 치즈

의 경우 95년 당시 36.9%의 양허관세로 시작, 수입개방을 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6%로 관세가 낮아진다. 그 결과 지난 '94년 3,120톤에 불과한 수입물량이 지난 2001년에는 3만4,448톤으로 무려 11배가 늘어났다.

우리의 원유수급 조절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혼합분유는 치즈와 마찬가지로 39.6%에서 내년에는 36%로 완전 개방함으로써 지난해 11월 현재 2만2,530톤이 수입됐다. 국내 원유가 남아돌든 말든 갈수록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유장의 경우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94.1% 관세 부과에서 2004년에는 49.5%로 낮추되 관세 20%의 시장 접근 물량을 95년 2만3,000톤에서 2004년 5만4,233톤으로 늘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의 수입 유당의 수요는 지난해 2만2,530톤으로 시장 접근물량보다 훨씬 적어 내막을 살펴보면 관세 20%로 수입개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7천722톤이 수입된 기타유장 역시 95년 46.3%의 양허관세로 개방되어 2004년 36%로 낮아지며 1만3,123톤이 수입된 유당도 시장 접근 물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94.1%에서 2004년에는 49.5%로 낮아지는 동시에 9천400톤의 접근물량





내 관세는 역시 20%이다. 지난해 4천886톤이 수입된 카제인은 94년 24.8%의 양허관세로 개방, 2004년 22.5%로 낮아진다.

이것이 바로 지난 1994년 WTO 협상 당시 타결된 한국의 주요 유제품 수입개방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등 낙농 선진국들은 당시 어떠한 협상을 얻어내 10년동안 자국의 낙농업을 보호하고 있는가.

캐나다는 WTO 협상 이후 최소시장 접근 물량을 자국내 유제품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현재는 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이상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의 고율 관세를 부과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정물량 외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무나 수입을 할 수가 없다. 연방 정부의 특수 법인인 캐나다낙농위원회(CDC)가 독점적으로 수입해 유통체를 통해 2차 가공업자에게 판매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유제품 소비량에 대한 5% 미만에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5% 미만의 수입 유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켜 사실상 수입을 금지시키도록 WTO 협상 당시 국경보호조치를 받아 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지분유 대체품인 농축유단백의 수입 물량이 늘어나자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서는 100파운드당 15센트의 판매촉진비를 부과시켜 소비홍보를 강화, 자국의 낙농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UR 이전부터 모든 유제품과 유제품의 조제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을 설정,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시켰던 캐나다는 UR 이후에도 미국보다 더욱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할당량(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한 주요 유제품의 수입가격을 25% 정도 높게 유지시켜 유제품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수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주요 유제품에 대한 수입은 일종의 국영무역으로 '농축 산업진흥사업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입, 관리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UR협상 이전에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일본내 버터의 대체품목으로 버터 시장을 교란시켰던 '조정식용유지'에 대해 UR에서 재협상을 통해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 고율의 2차관세를 부과하도록 협상력을 발휘, 현재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토록 선진낙농국들은 WTO 협상에서 강력한 낙농산업의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를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어냈는지 이제 낙농인들은 확실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번 DDA협상에서 현재 제출된 초안과 비슷한 방향으로 타결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초안대로라면 선진국의 경우 5년간 9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60%, 최소 40%의 관세를 감축하고 15~90% 품목은 평균 50%, 최소 35%의 관세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개도국은 10년간 관세가 120% 이상 품목은 평균 40%, 최소 30%, 20~120% 품목은 평균 33%, 최소 23%의 관세를 감축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개도국으로 인정받는다면 176% 관세의 조제분유와 탈지분유의 관세는 123%로 낮아진다.

그러나 36%의 혼합분유나 치즈, 기타유장은 평균 33%, 최소 23%의 관세를 낮춰야 한다면 28%로 낮아진다. 유장(49.5%), 카제인(22.5%)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도 만약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그 파장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낙농선진국들은 현재와 같이 수입 물량을 총 소비량의 5% 미만으로 하고 고율 관세의 초과 유제품의 관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워낙 현재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감축한다할지라도 자국의 낙농산업 보호는 지금처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낙농선진국들은 우유와 유제품이 우리의 쌀과 같은 존재이므로 절대로 쉽게 현재 보다 약한 협상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 일본처럼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오히려 '94년 당시 발가벗고 주었던 낙농분야의 취약한 협상 내용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 UR협상 때처럼 쌀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낙농 분야를 발가벗고 내주는 사태가 온다면 이제 우리 한국낙농업은 설 땅

을 잃게 될는지 모른다.

DDA농업 협상은 다자간 양자 협상이다. 따라서 낙농분야에 관한 한 우리와 협상 게임을 벌이는 주 대상국가는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가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도 우리에게 혼합분유, 버터, 치즈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주요 협상 대상 국가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국가는 낙농분야에서 우리와 주요협상 국가인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강렬하게 싸워야 할 국가라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에게 낙농분야에서 관세 보조금 등에 대해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호주나 뉴질랜드를 상대로는 자국의 낙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보호조치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에게는 우유와 유제품이 우리의 쌀과 같이 양보할 수 없는 식량안보 품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국민의 주식을 호주나 뉴질랜드 등 외국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도 호주나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자국의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낙농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 DDA농업협상은 시작됐다. 우리 낙농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712-9080)

♠ 수리뎀센 신토불이! 수슈도 신토불이! ♠